

6.2 지방선거 결과는 예상과 달리 민주당의 완승, 한나라당의 패배로 귀결이 났다. 어느 선거든 그 결과가 어떻든 이는 민심의 반영이고 민심은 천심(天心)임을 새삼 또 상기시켜 줬다. 야당에선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정권에 대한 냉엄한 심판을 내린 국민의 승리라 주장하고, 여당 쪽에선 그간 민심에 대한 공감 부족 탓이 큰 것으로 반성하는 모양이다.



### 불자 세상보기

신승철  
시인·정신과전문원

## 정치권력과 도덕성 제고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북풍을 선거에 활용하려던 여당의 그것과 달라 보이지 않았다. 어느 권력의 집단이든 그 집단 자체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국민을 이용하려는 특성이 있을 터다. 비록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자발적 선택이란 권리가 주어지지만, 권력간의 쟁탈싸움에서는 상대의 단점만을 크게 부각시키고 자신들의 정치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표방한다. 짧은 우리 현대사를 보더라도 권력을 획득한 뒤엔 국민들을 허수아비처럼 이용했다는 생각이 적지 않게 든다. 해서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비록 압승을 거둬왔고 있더라도 국민들의 뇌리가 그리 맑아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이번 정권은 알다

시피 지난 정권에 대한 반작용으로 얻어진 영향이 많다. 그 후 자기 우월의 폐쇄적 집단 논리가 횡행된 바가 많다고 느껴졌으리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근대화 회화를 이어가려는 정치적 의지가 잘못했다는 뜻은 없다. 허나 이 시대의 국민의 달라진 의식을 읽지 못하면 그런 의지는 또한 자기애적 착각(illusion)으로 비취질 수 있다. 그간 우리 현대사의 굴곡을 보면 권력과 국민의 관계는 양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어느 정권이든 독점적, 일방적 방향으로 가면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권력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견제세력에 표를 던지곤 했다. 덧붙여 이런 흐름을 보고 반대세력은 기존 정책의 문제를 선

동안기가 시작된 지 오래지 않은 어느 초겨울날이었다. 낄낄고 어두운 오대산 길을 버스에서 내려 홀로 걸어 들어갔다. 내가 외국에 잠시 다녀오는 사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관계들이 거저말처럼 모두 무너져 내렸다. 망연자실해 지리산 자락의 한 연립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한 스님에게 연락이 왔다.



### 사부대중 갈럼

안승경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과장

## 기도는 인과 받아들이는 과정

기 시작했다. 일도 익숙해지면서 낯은 시간이 생기고 잔심부름도 했다. 수행하는 스님들을 뵈게 되면서 스님들이 하는 공부와 최고의 것으로 보였다. 신심도 나면서 나도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받아심>을 사경하기 시작했다. 사경시간을 정하지도 않았고 횡수를 정하지도 않았다. 글씨를 잘 쓰지도 못하였지만 차분히 정성껏 적어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커다란 뱀이 품에서 타고 나와 오른쪽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팔을 뻗어서 품에서 깨어난 적이 있었다. 처음에는 무섭고 어쩐지 짝집에 어울리지 않는 안 좋은 꿈 같아서 속으로 찝찝해 하다가 주지스님에게 말씀드리니, 업장이 나가는 좋은 꿈이라 했다. 당시 여러 상황이 좋지 못한 상태이다 보니 남 탓을 하게 되고 원망이 많

아지고, 심성도 꼬여짐이 많아 원만하지 못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 한결 가벼운 기분이 들었다. 또, 어느 날 꿈에는 계곡에서 머리를 양쪽으로 묶어 올린 작은 분을 보았다. 나중에 상원사에 가보니 문수보살이셨다. 평소에는 잠이 많고 깊어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편인데 이 꿈들은 마치 생사 같이 잊혀지지 않았다. 어느덧 동안기가 끝나고 사경노트를 채워지자 대웅전에 들어가 부처님을 향해 어떻게 살아야하느냐고 여쭙며 1000배를 올렸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데 실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어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지만 이전에 느꼈던 무겁고 공포스러웠던 절망 같은 다소 줄어들었다. 감사하게도 여러 스님의 관심과 도움으로 진학하고 졸업도 해

악의 이분법으로 몰아세우며 극단적 또는 선동적 구호로 애국심을 자신만의 전유물이라고 강변해왔다. 국민의식은 점차 진화가 되고 있는데 위정자들의 사회적 진화만 덜 된 탓이다.

이제 국민은 권력의 교활함과 타락성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는 수준에 와 있다. 불확실성이 전제된 미래일수록 국민들은 어떤 '미신'이라도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해진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권력을 쟁취하다 하더라도 그 권력집단의 우월성이 결코 확보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희생양(희생양) 사건이나 4대강 사업 등으로 삼더라도, 국민들의 의식에 대한 제고나 사회 발전을 위한 근본적 통찰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권력행사에 있어 각기 위정자들은 도덕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의식을 무시한 또 다른 권력의 남용이 생긴다면, 그래서 사회적 통합이나 화합의 뜻이 아니고 사회적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역시 도덕적으로 타락한 집단이 되고 만다.

진보는 결국 권력의 도덕성 회복에 있을 것을 재삼 상기시키고 싶다. 그 어떤 정책대안 제시에 앞서 권력의 도덕성 회복이야말로 미래 우리 정치의 중요한 과제가 아니냐 싶다.

## 사설

### 화쟁위원회에 거는 기대 크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문기구인 화쟁위원회가 출범했다. 명칭에서도 드러나듯 대립과 갈등을 해소해 조화와 상생을 모색하는 방안을 찾아 총무원장에게 자문하는 것이 화쟁위원회의 역할이다. 불교 안팎에 산적해 있는 대립과 갈등 사안이 화쟁위원회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갈등 정도가 매우 높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해 펴낸 '한국의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비움'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갈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인 0.44보다 훨씬 높은 0.71이다. 터키(1.20), 폴란드(0.76), 슬로바키아(0.72)에 이례로 네 번째다. 사회갈등에 따른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27%라고 한다. 이런 수치가 아니어도

우리는 매일 전쟁을 치르듯 살아간다. 화쟁은 대립을 조화시킨다는 말이다. 신라의 원효 스님이 당시 다양한 불교 이론들의 집대성하는 가운데 큰 사상가로 이름을 떨쳐서 아니었다. 불교 안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내고, 사회 현안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려는 종단 차원의 의지와 자주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제야 그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화쟁위원회가 크게 활약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태고종의 제도 개혁

한국불교 태고종은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 등과 함께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이다. 사찰 수로 보면 규모가 가장 큰 종단이다. 그러나 근래 몇 년 사이 내홍을 겪으면서 종단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안타까운 목소리가 있었다.

그런 태고종이 개혁에 나섰다. 6월 10일 종단 운영의 근간인 각종 제도의 개혁안을 내놓고 첫 공청회를 열었다. 총무원장 인공 스님이 공청회에 참석, "수행교화 현장과 괴리가 있거나 시대에 뒤쳐진 제도 등을 정비 보완해 정통 종단 위상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뜻 깊은 자리"라며 "기탄없는 의견 개진과 지혜를 모아 올해 안으로 제도개혁을 완료하고 종단중흥발전을 이룩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종단의 조직 및 인사, 교육, 불교재산관리, 분담금, 득

도, 징계 등 6개 분야에 걸쳐 개선안이 발표됐으며, 열린 토론이 벌어졌다. 발표된 중 총무원장선거법, 사사상승, 지방종무원 설치 등에 대해 현실과 거리가 멀다면서 개선안의 재고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발표자들이 숙고해서 만든 안일지라도 반대 의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취지를 더 설명하고, 혹 모자라거나 남치는 점이 없으면 채우고 비우면서 가야 한다. 제도 개혁은 종단의 미래를 가늠하는 대작불사다. 사사로운 이해관계가 끼여들면 개혁하고자 했던 애초의 취지는 간데없고 갈등만 쌓인다. 그동안은 익숙했는지라도 종단의 미래를 안료하고 종단중흥발전을 이룩하자"고 당부했다.

###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형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외사홍연발담당 실시간뉴스 (02)2004-8213-7	www.hyunbul.com www.buddhanews.com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불교포탈 부디피아 (02)737-0696	www.buddhapia.com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사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계의 상상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계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여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분묘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 “모두 교환해 쓰십시오”

1. 「적중도」와 「효과성」을 최고로 달성시킨 「2010 완결보정판」 육임 상담용 종합CD프로그램입니다. 기존 판매된 「I·II·III·완결판」과 실비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완벽합니다. 모두 교환해 쓰십시오.
2. 신규 구입 가격은 500만원입니다. 「신뢰성」이 담보 되어 있습니다.
3. 「육임활용서책」만을 구입 교환 하실분은 옆 라벨에 적시된 - 수록활용서목록 - 중에서 고르십시오. 각 최정령 증보개정 되어 가치 「비급」이라 할 만 합니다.
4. 육임종합합서 「효사육임강론」 上·下 권도 5월말 현재 「2010증보완결판」으로 나와 실비 교환중에 있습니다.



구입·승인·교환 안내 : (051) 908-8683 담당 : 진민경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총재 고복자 효사 배상  
www.taotemple.net